

꿀짜가 첫째되고,  
첫째가 꿀짜 될 것이다.(마태 20,16)

그림 : 윤계항 프란치스카(부산가톨릭미술인회)

## 연중 제25주일

**제1독서** 이사야서 55, 6~9

**화답송** 시편 145(144), 2~3, 8~9, 17~18 (© 18 참조)

◎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1.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받으실 분, 그분의 위대하심 헤아릴 길 없어라. ◎
2.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3.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

**제2독서** 필리피서 1, 20ㄷ~24, 27ㄱ

**복음환호송** 사도 16, 14 참조

◎ 알렐루야.

주님, 저희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 아드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

**복음** 마태오 20, 1~16

**영성체송** 시편 119(118), 4~5 참조

주님은 규정을 내리시어 어김없이 지키라 하셨나이다. 당신 법령을 지키도록 저의 길을 굳건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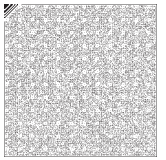


스마트폰에서 교구소식을

QR코드를 사용하면 가톨릭부산 모바일 웹에 쉽게 접속할 수 있으며, 유튜브 방송 '가톨릭 라이브 부산'도 보실 수 있습니다. 미사 중에는 자제해주세요. <http://www.catholicbusan.or.kr>



# “이게 하늘나라입니까?”



지난겨울, 많은 국민들이 수많은 광장과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이게 나라냐!”고 외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혹시 오늘 복음을 들으신 분들 중에, 피약별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이들과 겨우 한 시간만 일한 이들에게 같은 임금을 지불하는, 게다가 내가 가진 것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막말을 일삼는 발 임자의 언행에 ‘이게 하늘나라냐?’ 하고 불평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하늘나라 비유의 주인공인 발 임자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아 나섭니다. 아침 일찍 만난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일을 줍니다. 자비로운 발 임자는 그 이후에도 돌아다니다가 선택받지 못한 일꾼들을 발견하고는 정당한 삯을 주기로 하고 일을 줍니다.

문제는 일을 마치고 품삯을 내줄 때 일어납니다. 아침부터 일한 이

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고 늦게 와서 한 시간만 일한 이들도 정당한 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아침부터 고생한 일꾼들은 정당한 삯 이상의 대우를 기대했는지 발 임자에게 투덜거립니다. 그들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박한 대우를 받았고, 다른 사람은 후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 또는 정당한 삯이란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을 선물 받고 그것이 박한 대우라니요! 시기, 질투에 눈먼 그들은 천국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나의 노동을 지불하고 그 대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발 임자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이든 오후 다섯 시든, 발 임자가 일을 주었기

때문에 포도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즉 하늘나라는 내가 기도나 희생과 봉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의 신앙생활이 올바랐음을 인정 해주신 하느님의 은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자격은 내가 갖추어야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하느님이십니다. 하늘나라에서 ‘너는 왜 있냐?’는 물음과 ‘그가 왜 없을까?’라는 물음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잣대로 하는 이런 질문은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 세상의 기준과는 달라서 꼴찌가 첫째가 될 수도 있는 나라, 인간의 심보와는 다른 후한 주인을 만날 수 있는 나라, 이게 하늘나라입니다.

이 장 환  
마르티노 신부  
부산교구



**지금 여기**

## 또 벽 앞이라도

부딪힌 벽에서 막 돌아섰기에  
당분간 관참을 줄 알았는데  
벽은 길보다 훨씬 많고 여기가 바닥이려니 했지만  
아직도 떨어지는 종이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우린 살아있으니까.  
산다는 건 벽과 벽 그 틈을 오가고  
그러면서 슬프고 행복하고 아프고 아름답다가  
쓸쓸하길 반복하는 거지.

글·그림 : 이영 아네스 수필가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101.1 MHz    울산 FM 94.3 MHz    녹산 FM 101.5 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9.25(월)~26(화)  
이장환 신부(부산교구)

9.27(수)~30(토)  
심상운 신부(삼계성당 부주임)

**사랑이 있는 세상**    문자참여 #2340  
월~목 12:15~14:00

**9.26(화) 함께 하는 여정**  
출연 :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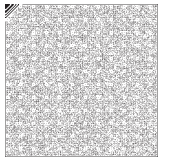
**하느님과 하나되는 하루**  
9.29(금) 12:15~14:00

진행 : 이재석 신부(밀양성당 주임)  
출연 : 김지호 안토니오



## 순교자 성월에 드리는 등대회 미사

고 길 석 프란치스코



부산시 가톨릭 공무원 모임으로 등대회가 있습니다. 1988년에 결성되어 지금까지 이어오며 최정훈 신부님께서 지도 신부로 계십니다. 2016년 '기초공동체 복음화의 해' 를 지내며 직종별 단체의 영적 결속과 친교를 목적으로 등대회 활성화를 위해 지도 신부님께서서는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올해 초부터는 그 일환으로 시청을 중심으로 미사나 모임을 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각 구청 중심의 미사 시간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구청별로 사정이 다르기에 3명 이상만 모이면 구청을 방문하여 미사를 봉헌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공직생활을 하며 활기찬 신앙생활을 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근무하는 해운대구에 서는 두 달에 한 번꼴로 신부님을 모시고 미사를 봉헌하자고 회원들

끼리 다짐을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많을 때는 15명, 적게는 8 명이 퇴근 후 모여 강당 한편에 제대를 마련해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홀수달 첫 화요일인 지난 9월 5일 12명이 모였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어김없이 방문하여 미사를 집전해 주셨습니다. 주일 500명 정도 모이는 교중미사를 드리다 십여 명이 드리는 미사는 참 색다른 은혜로움이었습니다. 성체와 성혈을 함께 영할 수 있는 기회는 자주 오지 않기에 더욱 감사함이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께서는 미사를 드리려고 수십 리 길을 걸어 갖은 고초를 겪으며 어느 장소에 모이면 그곳을 찾아오신 신부님을 통해 성체를 모셨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얘기가 전설처럼 들리는 시대입니다. 외적으로 체험하는 박해의 시대는 사라졌지만, 믿는 이들

이 성체를 모시는 시간은 짧아져 갑니다. 무엇이 귀하고 중한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다음에 미사 드리면 되지... 아니면 주일 미사 드리면 되는 것이고” 이런 생각이 마음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일로 바쁘니다. 이렇게 시간은 지나가 버립니다. 순교자들께서 그렇게 갈망했던 ‘그리스도의 몸과 피’ 를 삶의 우선순위에 둔다면 너무도 안락하게 모실 수 있는 환경입니다. 감사함이 밀려옵니다.

세상의 등불이 되라는 주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등대회원들은 가능한 한 자주 미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 안락성당**

주보에 실린 글은 교구 홈페이지 인터넷 주보에서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더 많은 교회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catholicbusan.or.kr>

### 환경과 생명 가장 많이 피는 꽃

숨 막히는 아스팔트 거리를 거닐면서도 가끔 숨통을 트는 것은 어느 집 화단에 심어진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그리고 무엇보다 꽃 한 송이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꽃 한 송이에 단단히 굳어버린 마음이 풀리고, 악다구니를 쓰다가 부르르 떨며 움켜쥔 그 주먹을 펴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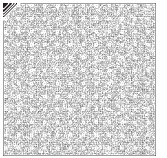
이처럼 자연은 단순히 조경업자가 건물을 돋보이기 위해 재료로 여기저기 갖다 꽃이놓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처럼 인간의 심미적 욕구를 채워주는 꽃 중 가장 많이 피는 꽃은 무슨 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벼꽃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쌀수확량은 419만7000 톤이고, 그 재배면적은 77만873 헥타르였습니다. 쉽게 말해 부산 면적의 약 10배의 땅에 빠짐없이 벼를 심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핀 벼꽃의 양이란 이

루 말할 수 없이 많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벼꽃은 길어야 겨우 1시간만 피고 집니다. 그리고 이 벼꽃은 자신을 화려하게 꾸밀 꽃잎도 꽃받침대도 없습니다. 벌과 나비를 불러들일 꿀도 없습니다. 그저 나중에 왕겨가 되는 껍질 사이로 수술이 푹 튀어나와 그 안쪽에 숨겨진 암술에 바람에 흔들려 꽃가루를 얹어주고선 꽃은 집니다. 꽃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쓰지 않고 무더운 7월 말 8월 초에 그렇게 잠시 피었다 지면서 가능한 한 대부분 에너지를 열매에게 양보하는 이 벼꽃은 그래서 초라하지만 가장 고귀한 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쌀알 하나에 벼꽃 한 송이이니 우리는 하루 세 번 한 무더기의 꽃다발을 먹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이즈음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한 번 물어보아야겠습니다. 과연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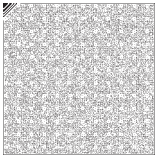
**■ 우리농 본부(051-464-8495) woori-pusan@hanmail.net**



사제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검토한 《2017년 9월 사제정기인사 내정 안》을 참사회가 확정하여 다음과 같이 인사 발령합니다. 그동안 각 소임지에서 사목해주신 신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 소임지에서도 착한 목자로서 사목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현임지	새임지	성명	현임지	새임지
표중관	연산 주임	은퇴	고원일	서면 협력사목 주임	안식년
김승주	이기대 주임	은퇴	박근범	부산가톨릭의료원 원목	괴정 주임
김석중	만덕 주임	성가정 주임	장훈철	석포 주임	야음 주임
이기정	장유 주임	성지 주임	오종섭	장유대청 주임	전산홍보국장
심순보	임호 주임	연산 주임	장민호	울하 주임	안식년
예정출	동래 주임	남천 주임	강지원	안식년	장유대청 주임
오창일	방어진 주임	사하 주임	한윤식	신학대학	부산가톨릭대학교
김두운	사하 주임	동래 주임	송제호	범서 주임	거제동 주임
김형근	인보 주임	휴양	김두유	연지 주임	방어진 주임
박재구	광안 주임	로사사회봉사회 이사장 겸 흰돌타운 주임	김태환	지내 주임	부곡 주임
오창열	삼계 주임	뉴질랜드 오클랜드 주임	장용진	안식년	범서 주임
김성규	전하 주임	못골 주임	박규환	삼랑진 주임	영주 주임
최성철	성안 주임	휴양	권동성	부곡 주임	성안 주임
오창근	미국 토렌스 주임	임호 주임	맹진학	로사사회봉사회 이사장 겸 흰돌타운 주임	지내 주임
장세명	괴정 주임	웅상 주임	최요섭	모라성요한 주임	울하 주임
이장환	부산가톨릭대학교	안식년	천경훈	꽃바위 주임	송도 주임
이성주	전산홍보국장	삼계 주임	박호준	미국 이튼타운 주임	울산대리구 성지사목담당
심원택	수영 주임	미국 토렌스 주임	윤승식	범일 협력사목 주임	청학 주임
윤정환	성지 주임	전하 주임	김기영	일본 히로시마 파견	부산성모병원 행정부원장
박상운	웅상 주임	연지 주임	김종남	병영 주임	석포 주임
이정민	안식년	토현 주임	최병권	영주 주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주임
주영돈	토현 주임	안식년	김지황	송도 주임	미국 아이타스카 주임
윤준원	남천 주임	인보 주임	강정웅	반송 협력사목 주임	모라성요한 주임
최현욱	성가정 주임	이기대 주임	안형준	선교사목국 부국장	병영 주임
김수원	미국 아이타스카 주임	만덕 주임	김종규	울산대리구 성지사목담당	반송 협력사목 주임
손태성	뉴질랜드 오클랜드 주임	장유 주임	민병국	못골 주임	서면 협력사목 주임
이상일	안식년	주례 주임	권순호	주례 주임	신학대학
박 혁	거제동 주임	안식년	이영준	청학 주임	미국 이튼타운 주임
차공명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주임	꽃바위 주임	엄종건	문현 부주임	삼랑진 주임
오용환	야음 주임	안식년	장재명	해외유학	안락 부주임
강병규	안식년	부산가톨릭의료원 원목	원형준	국내연학	범일 부주임
강현철	안식년	광안 주임	홍영택	안락 부주임	선교사목국 부국장
곽용승	부산성모병원 행정부원장	수영 주임			

인수인계 9월 26일(화) 10:30 부임일 9월 29일(금) 11:00



## 2% 다른 길

■ 심명희 지음 ■ 생활성서사 ■ 13,000원



약사라면 편안한 삶을 택할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녀는 인생의 많은 부분을 다수가 택하지 않는, 외로운 2퍼센트의 길 위에서 보낸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히 만드는 자비의 힘을 이웃들의 『2% 다른 길』에서 발견하길 희망합니다.

## 까칠한 윤리 숨통 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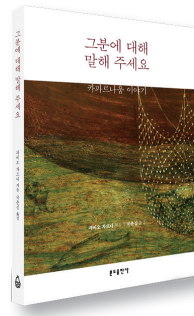
■ 장재봉 지음 ■ 바오로딸 ■ 11,000원



현대 사회의 도덕적 위기는 주관적 가치를 절대화하고 규칙을 그저 지켜야 하는 형식으로 오인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런 까닭에 대다수가 윤리란 지겹고 귀찮고 매력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윤리를 매력 덩어리로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저자의 고민은 늘 한 가지입니다.

## 그분에 대해 말해주세요

■ 파비오 차르디 지음 ■ 국춘심 옮김  
■ 성바오로출판사 ■ 13,000원



소설로 읽는 가파르나움 이야기. 저자는 제자들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모여 그분에 대해 말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성경의 딱딱하고 간결한 묘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그분의 인간적이고 따뜻한 면모를 생생하고 실감 나게 이야기하는 소설 형식으로 쓰인 책입니다.

교구 홈페이지 '책과 나는 정담' 코너에 권장도서의 독후감을 올려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댄보걸즈

- ▶ 상영관 : 가톨릭소극장(아트씨어터C&C)
- ▶ 상영시간표 : 가톨릭센터 홈페이지 참조
- ▶ 문의 : 442-0602, [cafe.naver.com/cnctheater](http://cafe.naver.com/cnctheater)
- ▶ 관람료 : 주보 저참 시 6천원 → 5천원, 단체 관람 시(20명 이상) 4천원

성적은 '9등급'이지만,  
'댄'스 스'보'츠는 잘하고 싶다!

구조조정이 시작된 조선소에 취업을 준비하는 거제여상 학생들. 그곳에 다른 꿈을 꾸는 소녀들이 있다. 완뚜쓰리보 앤 완뚜쓰리보! 열여덟 소녀들의 '댄보'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



290

반모임에 가면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신앙심이 깊지 않아서 성경을 읽어도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말 주변이 없어서 어떻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반원들은 기도면 기도, 나눔이면 나눔, 유창하게 잘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반원들처럼 반모임에서 기도나 나눔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책에서 참된 나눔을 위한 4가지 원칙에 대해 읽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차례가 주어졌을 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참된 것과 진심 어린 것만을 나눈다. 둘째, 무엇보다 내가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훈련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침묵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나의 차례가 돌아왔을 때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을 훈련한다.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변명하거나, 방어적이지 않게 간단하게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듯이 담백하게 말한다. 넷째, 머릿속으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미리 예행 연습하지 않는다. 그 때 그 때 마음 속에 주어지는 것을 정직하게 말한다. 세련되게 말하는 것보다 서툴지만 진실되게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잊지 않는다.” 이는 사제인 저에게도 정말 필요한 충고이

기도 합니다.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거의 15년 사제생활 동안 강론을 하다 보니 저의 말씀씨도 엄청 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 보다는 내 말만 하려고 하고, 화려한 언변에 점점 진심이 없어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화려한 말에 진심은 없고 물건을 팔려는 공공미만 있는 약장수를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말씀을 듣기 위해 먼저 침묵하기를, 화려한 말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말로 기도하기를 가르치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화려한 기도가 아니라 진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신의 말을 잘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들읍시다. 그리고 화려하지 않지만 소박하고 진실된 말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삶을 나누도록 합시다.

■ 권순호 신부(주례성당 주임) [albkw93@hotmail.com](mailto:albkw93@hotmail.com)





# 계간 『부산가톨릭문학』 가을호 발간

## 추수를 하고 나누는 공간

추수를 하고 나면 그 풍성함에 나누기를 잊지 않으시는지요? 가을 수확은 나자로와 부자의 이야기처럼 창고에 쌓아두고 홀로 누리는 게 아니지요. 하늘에 보화를 쌓듯이 나누면 더 채워질 것입니다.

이제 『부산가톨릭문학』도 지난 여름호(제35호)부터 나눔을 실천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애청자들에게 정기구독권을 선물하고 있으며, 정기구독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함께 문학적 양식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가을호(제36호) ‘신인문학상’ 수상자로는 시 갈래에서 세분을 선정하였습니다. 박영선님의 ‘작업.1.’ 외 2편, 원필숙님의 ‘노을’ 외 2편과 88세 고령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글과 사진을 찍으며 자기만의 신앙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공모하신 김숙희님의 ‘민들레’ 외 2편입니다.

문학은 나이를 넘어 모두를 공감하게 하고 감동을 주는 삶과 신앙의 소중한 기록입니다. 겨울호(제37호) ‘신인문학상 공모’에 응모하시어 망설이고 미루어 둔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 신인문학상 작품 공모 (수시 모집)

겨울호 접수 : 10.31(화)까지 / 보낼 곳 : gaserol@hanmail.net

\* 자세한 요강은 문인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litera.catb.kr)

## 교 구

### 제4기 성모어머니학교

· 10.19~11.16 매주 목 10:00~15:00(총 5주 과정)  
· 교구청 5층 강당  
접수 : 8.16(수)~9.30(토), 선착순 49명  
대상 : 자녀를 둔 어머니(종교 무관)  
문의 : 010-2202-0470, 010-8822-1993

### 제9기 성요셉아버지학교

· 10.21~11.18 매주 토 15:00~21:00(총 5주 과정)  
· 부곡동 한국외방선교수녀회 강당  
접수 : 8.16(수)~9.30(토), 선착순 49명  
대상 : 자녀를 둔 아버지(종교 무관)  
문의 : 010-6408-6111, 010-3460-0696

## 본 당

### 반송성당 관리자 구함

자격 : 운전면허(1종보통), 기타 기능자격증소지자  
서류 : 이력서, 교적사본, 본당신부추천서  
문의 : 542-1530

## 기관 · 제 단체 · 위원회

### 군중후원회 미사

부산 : 9.28(목) 14:00 가톨릭센터 경당  
주례 : 이상울 신부(19전투비행단 은성대성당)  
울산 : 10.13(금) 10:00 옥동성당  
주례 : 송재현 신부(53사단 하상바로성당)  
문의 : 751-3610, (052)274-3608

## 파티마100주년기념 국제순례성모상 전국순회 피날레 감사제

일시/ 10.13(금) 10:00~16:00 장소/ 부산 강서실내체육관

10:00 목주기도  
12:20 뮤지컬 <파티마, 희망을 노래하다> 무료공연  
14:00 한반도평화통일 기원미사 : 손삼석 주교 및 사제단

문의 : 646-3746, 635-3854(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한국본부)

\* 참석을 원하시는 신부님께서는 미리 연락해주시고 장백의와 영대를 준비해오시기 바랍니다.



### 바로로 아람터 후원회 미사

· 9.25(월) 10:30 · 바로로아람터  
문의 : 514-6988

### 소화영아재활원 후원회 미사

· 9.25(월) 13:30 · 소화영아재활원  
문의 : 644-1729, 0272

### 정의평화위원회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 9.25(월) 19:30 · 야음성당 성전  
주제 : 사드 배치의 진실과 한반도 평화  
강사 : 고영대(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문의 : 465-9508(정의평화위원회) / 무료강의와 미사

### 파티마의세계사도직 성모 신심 피정

· 9.25(월) 09:30~16:30 · 푸른군대 경당  
강사 : 박상운 신부(전주교구)  
문의 : 646-3746(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 아뉴스데이합창단 성음악 미사

· 9.26(화) 19:30 · 양정성당  
지도신부 : 임석수 신부 / 지휘 : 최금화  
문의 : 010-8544-7530(단장 채상득)

### 부산그레고리오합창단 월미사 및 단원 모집

· 9.27(수) 19:30 · 망미성당 / 그레고리오성가에 관심있고 함께 활동하실 남성단원  
문의 : 010-7339-8545 / 단장 : 김종민

### 노동사목 바자율미사(후원미사)

· 9.28(목) 19:00 · 가톨릭센터 경당  
문의 : 441-6403

### 부산 미바회 후원회 미사

· 9.29(금) 10:00 / 세계조선교회차량지원  
· 문현성당 / 문의 : 010-9312-4228(회장)

### 교구평협 시복시성기원 도보성지순례

· 9.30(토) 09:00(11:00 미사) / 개인 도시락 지참  
· 삼랑진역 출발, 김범우요 순례  
기차 : 부산역 07:50 출발, 구포 08:04  
개인 도시락 지참 / 문의 : 622-5588(평협)

2017년  
**레파시오 추모음악회**  
일시/ 9.30(토) 11:00  
장소/ 봉안당 내 경당  
문의 : (055)374-8732~3  
(부산교구공원묘지 하늘공원 관리사무실)

부산교구  
공원묘지  
**하늘공원**  
추석 합동 위령미사  
· 10.4(수) 11:00 · 봉안당 내 경당  
▶ 추석 당일엔 셔틀버스 운행하지 않습니다 ◀  
※ 분양 문의 : 관리사무실 Tel. 055)374-8732~3

목주반지 전문 금방  
다양한 예물, 커플링, 패션제품  
**서울공예사**  
범일동역 12번 출구 중앙 귀금속 115호  
(주.야)631-5006, 631-5007  
황인환(가를로) · 김경자(모니카)

**분도목공소**  
제대, 강론대, 장래를 등  
각종 성구 제작  
www.bundowood.kr  
공 장 : 262-1959  
대표번호 : 1544-2391

대청동 (구)미문화원 맞은편  
**오민웅 (다미아노)**  
정신건강의학과  
461-0303

하지정맥중점클리닉  
**길맥외과의원**  
센텀시티역 11, 13번 출구  
임페리얼타워 15층  
754-9975

포장이사 전문업체  
**성신익스프레스**  
(영구크린 부산지점)  
이사와 청소를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  
242-4222, 1522-4324  
www.ss0924.com

**속편한내과, 영상의학과**  
간, 소화기병 전문 진료, 종합검진, 보혈공단검진  
전단방사선 전문검사(초음파, 컴퓨터 단층촬영)  
· 소화기내과 원장  
김주호(스테파노), 김진도(안드레아),  
허정호(루카), 조성락, 안서룡, 이정연  
· 진단방사선과 원장 : 임성업, 박성욱  
554-1088/동래지하철역 1번 출구 맞은편

**제이스 귀금속**  
최신형 패션제품, 예물과 커플링  
목주반지, 남성용 주얼리 전문매장  
633-4549, 634-4539  
박정희(요셉), 손혜경(요세파)  
010-8661-3631, 010-3558-3630  
범일동역 12번 출구 중앙귀금속상가 125호

갑상선 · 당뇨 · 고혈압 · 골다공증  
**김용기내과의원**  
[충무동 구. 김동수 내과]  
원장 김용기(T. 아퀴나스)  
전 부산의대 학생 및 내과전문의 8명  
상담 및 예약 245-7100

제51차 아일랜드 영어연수  
초 · 중 · 고 : 1/6~2/11  
아일랜드 학교, 학생들과 함께  
대학생 · 일반 : 1/2~2/11  
세계 연수생들과 함께  
02-3446-4253 그린피스이엔티  
후원 : 카푸친 작은 형제회

**동국주단**  
부산일보 강소상인 한복  
변관현(시몬) 최상희(안나)  
(본점) 부산진시장 (지점) 자성대 서문 입구  
643-7070, 010-9243-5776

6 · 연중 제25주일

♣ 29일 : 가브리엘, 가브리엘라, 가이아나, 감멜라, 구텔리아, 그리모알도, 다다, 라파엘, 라파엘라, 립시미스, 미카엘, 미카엘라, 에우티키오, 카스도아, 퀴리아코, 테오도라, 프라테르노, 플라우토, 헤라클레아

### 가톨릭센터 사진교실 가을학기 수강생 모집

초급반 개강 : 10.12(목) 19:00 (매주 목요일)  
 강사 : 최경현(사진작가)  
 과정 : 15회 과정 / 수강료 : 20만원

### 가톨릭센터 사무실 임대(6층, 7층)

용도 : 사무실(6층 15평, 7층 20평)  
 문의 : 462-1870(행정실)

### 제22기 인문고전대학 개강

개강 : 10.10(화) 19:00 가톨릭센터  
 과정 : 매주 화, 수, 목 강의(10주간)  
 화 : 침묵의 철학, 선 - 김미숙  
 수 : 신화와 문학의 기억 - 안수현  
 목 : 서양 미학과 예술의 원리적 이해 2 - 김창준  
 문의 : 510-0554(인문학연구소)

### 평신도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대상 :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  
 수강신청 : 본당 사무실, 가톨릭센터 홈페이지  
 (www.bccenter.or.kr), 신학원 카페(cafe.daum.net/catholic-sinhak) / 문의 : 462-0334(월~금, 14:00~17:00), logos1981@daum.net

### 가톨릭심리상담소 행복나눔의전화 : 463-7866

상담 : 월~금 10:00~16:30(중주 대청동)  
 내방상담 : 신자, 비신자 및 타종교인(전화 예약)  
 청소년 진로 및 심리상담 : 토요일 10:00~16:30  
 상담사 : 조옥진 신부(상담심리학 박사) 및 전문상담사

### 메리놀병원 2018년도 신규간호사 모집

응시자격 : 간호대학 및 간호학과 2018년 졸업예정자(남자는 병역 필하거나 면제자)  
 접수 : 9.29(금) 까지 / 접수방법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maryknoll.co.kr 참조  
 문의 : 461-2281, 2271 (간호부)

### cpbc부산가톨릭평화방송 2017년 공개채용

모집부문 : 아나운서(아나운서 겸 PD), PD  
 마감 : 10.9(월) 17:00 / 문의 : 600-8800  
 홈페이지(www.pbcbcs.co.kr) 참조

### [특별기획] 소리로 만나는 영화



일시. 9월 26일(화) 15:00

장소. 가톨릭센터 소극장

문의. 600-8800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1부 배리어프리 공연 <클래식 음악 공연>  
 2부 영화 '사랑하기 때문에' 무료 상영  
 진행 : 김문이 아나운서

###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교구 철야기도회  
 · 9.29(금) 22:30~다음날 04:00  
 - 젊은이 성령기도  
 · 9.25(월) 19:30 전포성당  
 · 9.27(수) 20:00 울산대리구 별관  
 - 수요치유기도회 (버스안내카드 참조)  
 · 9.27(수) 11:00 / 점심제공  
 - 후원회 월미사 (버스안내카드 참조)  
 · 9.25(월) 11:00~14:30 / 점심제공  
 - 10.4(수) 수요치유기도회(추석)  
 - 10.6(금) 철야기도회(추석)

### 울산대리구 (052)244-7014 울산 영성의 집

-울산 기도회  
 · 9.28(목) 20:00~23:00  
 강사 : 박주병 형제(서울대교구)  
 - 100단 묵주기도(미사·안수) / 점심 제공  
 · 10.16(월) 09:00~17:00 울산 영성의 집

### 부산성모병원 편의시설 임대사업자 모집

지하 1층 신라평과 전용면적 : 42㎡(상호 변경가능)  
 임대조건 : 보증금 2억, 월세 50만원(입찰 최저가)  
 부가세 별도 / 계약기간 : 협의, 입찰기한 : 9.29(금)  
 입찰자격 : 빵집입대 우선, 입찰자 직접 경영,  
 전전입대 불가 / 문의 : 933-7033(총무팀)

### 교육 · 모집 · 기타

### 영원한 도움의 성모 9일 기도와 미사

· 9.26(화) 14:00 · 서면성당  
 교리강의, 미사 전 후 고해성사  
 주례 : 구속주회 신부 / 문의 : 010-7132-6379

###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후원회 미사

· 9.30(토) 11:00(범일성당) 임주 김인교 09:00(출발)  
 · 양산 무아의 집 / 문의 : 010-3355-4997

### 티없으신마리아성심 재속3회 지원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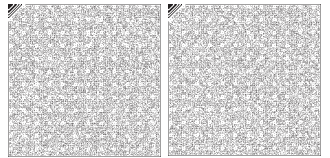
첫모임 : 10.9(월) 13:00 마리아피정센터  
 대상 : 티없으신성심에 대한 봉헌생활을 원하는 신자  
 문의 : 010-6764-3746(티없으신마리아성심수녀회)

### 노인복지주택 흰돌실버타운 입주자 모집

신축 20평형 10월 중순 입주 신청 중  
 대상 : 독립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 부부(또는 단독) - 의료, 건강서비스 및 취미활동 지원  
 · 9.25(월) 16:00 신축 10호동 기념미사  
 매일 10:00~17:00 전화, 방문 상담 가능(휴무일 없음) / 문의 : 758-6231, 010-5574-6231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시	장소	문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10.1(일) 10:00	서울 돈암동 본부	02-924-3048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10.1(일) 14:00	부산 본원	010-6271-4110
한국외방선교회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010-3777-4688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입니다.



### MBTI와 마음여행 2단계

· 9.30(토) 10:00~17:00 · 성심영성센터  
 내용 : 자신과 가족의 강점 및 스트레스 상황에서  
 의 심리적 게임 인식을 통한 성숙한 관계 형성  
 문의 : 581-3114

### 평화의 모후 양관의 열두개의 별

#### 성광과 성체현시 제대 안치

· 10.14(토) · 남양성모성지  
 10:00 묵주기도, 11:00 미사, 미사 후 제대 안치식  
 주례 : 이용훈 주교(수원교구장)  
 문의 : (031)356-5880

###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피정

[예수마음기도영성수련] 강사 : 권민자 수녀  
 3박4일 피정 : 10.12(목)~15(일), 11.2(목)~5(일)  
 8박9일 피정 : 10.18(수)~26(목), 11.16(목)~24(금)  
 40일 피정 : 10.6(금)~11.15(수)  
 문의 : 010-4906-5722, (031)953-6932

### 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 엠마오 피정

· 10.27(금) 20:00~29(일) 16:00  
 · 경북 안동 수녀원 본원  
 주제 : 주님과 함께 길을 / 피정비 : 3만 5천원  
 대상 : 만 20세~34세 미혼 여성  
 마감 : 10.22(일) / 문의 : 010-6561-8835

### 2018년 화요일아침예술학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 10.16(월)~31(화)  
 모집인원 및 자격 : 여학생 10명, 중학교 졸업  
 예정자 및 중학교졸업학력 검증고시 합격자  
 문의 : 070-8891-3831(교무실), (031)832-9988(행정실), www.flowerdaymorning.com  
 ※ 서울가톨릭청소녀회 무상 운영, 기숙형 학력인정  
 대안학교(미술적 재능을 가진 어려운 가정환경의 학생들에게 일반교육과정 및 미술심화교육과정운영)

### 배상섭 신부와 함께 하는 성지순례

· 2018.4.23(월)~5.5(토) · 서유령성모성지  
 부산 출발 / 문의 : 010-3837-6434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 입양원

입양 및 미혼모 상담(국내 입양 전문)  
 문의 : (02)764-4741~3, www.holyfac.or.kr

'옥에 티' 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 · 탈자를 발견하시면 카톡 플러스친구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b>요양보호사</b> <b>국비교육생 모집</b> 직무교육 모집 818-1004, 245-1004 전사요양보호사교육원	재활전문 요양병원 <b>좋은애인요양병원</b>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병원 진료적정성평가 1등급 간호사 및 간병인 비율 부산최고 뇌졸중 / 중풍 / 통증 / 척추손상 재활치료 말기암 호스피스, 내/외과계 한방협진 안락로타리 병상병원 옆 T. 520-7700	<b>동래로타리</b> <b>독일보청기</b> 교우특별할인 방(아브라함) 송(아가다) 555-5777 지하철수안역 7번 출구 앞(국민은행 옆)	임플란트, 심미보철, 교정치료 <b>성모치과</b> 원장. 송 치 원(라우렌시오) 633-8228, 634-8228 지하철 1호선 범일동역 1번 출구 50m	<b>삼성내과 엠엘영상의학과의</b> 류마티스, 대장 내시경, MRI 내과 의학과 : 박인호(후카), 한경문 소화기 내과 : 최병락, 유원희, 남화성 류마티스 내과 : 서수홍(라파엘) 영상의학과 : 박재영, 윤지영 산부인과 겸직 : 이우희 하단역 2번 출구 삼성메디칼 9-12층 208-5566
<b>뉴옥스마일</b> <b>교정전문치과</b> 박 현 정(마리아) ABO공인, 미국교정전문의원 비수술 주걱턱 인면비대칭 립본 돌출입 어린이 주걱턱 702-6677	<b>동래참사랑재활요양병원</b> <b>광안참사랑재활요양병원</b> 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 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 · 한방 협진 동래 : 553-0050 추홍수(아고보) 광안 : 751-1515 김병희(아네스)	50년 전통 <b>명신당</b> 목주반지, 귀금속 예물도매 전문 반광옥(바오로) 김영란(제노베파) 646-7885 010-3599-7885 부산은행 범일점 맞은편	<b>동부증권</b> 개인금융 및 법인금융 탐장. 정 기 준(프란치스코) 241-5454, 010-3186-3897 센텀시티역 2번 출구	<b>광명재가노인복지센터</b> 방문요양, 방문목욕 만 65세 이상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가족처럼 정성껏 돌봐 드립니다. 요양보호사 모집, 교우부 우대 감 중 관(토마스), 김 태 순(안젤라) 752-6516, 010-7597-9264